

영암 앵커기관·기업, 지방소멸 대응 뚝뚝 뚫었다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전략’ 공청회에서 4대 핵심 전략 발표 39개 기관·기업 실천 협약·郡 농특산물 우선 구매 등 실천

영암군이 지역순환경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섰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공청회 왕인실에서 군민, 지역 앵커기관·기업, 공직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전략 수립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영암군 지역순환경제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4대 핵심 전략을 공개하고, 군민과 지역 앵커기관·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황중규 교수의 ‘지역위기와 지역 만들기’의 주제’ 기조 발제로 시작해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함께 4대 핵심 전략을 소개했다. 영암군은 지난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

표로 전략을 수립해왔다. 1대 전략은 ‘로컬푸드 고부가가치화 및 기획 생산 체계 확립’이다. 질 높은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통해 현재 20억원 규모의 로컬푸드 매출을 100억원대로 5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한 영암산 학교급식 납품 식재료 비율을 2023년까지 현재 30%에서 72%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농산물 유통 전문가 양성과 중소농·고령농·청년농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2대 전략은 ‘영암형 지역순환경제기금 조성’이다. 주거·의료·돌봄·복지·환경 등 공공서비스 사업을 발굴·투자하고 관련 창업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화폐 30 설계와 순환형 화폐 전환으로 지역 내 부가가치 순환율을 높이고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기로 했



영암군이 최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공청회를 개최하고 4대 핵심전략을 담은 부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다. 영암군은 이런 조치가 지역화폐 기업을 높여 자금의 순환 구조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대 전략은 ‘사회적경제 조직, 중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다. 공공조달 혁신과 지역 생산품 사용 활성화로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축으로 삼아 지역 내 경제활동을 활성화한다. 영암군은 부족한 물품을 인접 지자체

와 협력해 광역 공공조달권을 형성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하고 지역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4대 전략은 ‘지역경제주체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순환경제 전담부서 설치’다. 영암군의회,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지역 앵커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각 부서별로 분산된 사업을 연계하고 협업을 강화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39개 지역 앵커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영암형 지역순환경제 실천 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에는 정주인구 확대 지원, 지역인재 우선 채용, 지역화폐 확대 사용, 농특산물 우선 구매, 사회공헌활동 등 8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순환경제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순환경제는 영암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재투자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군민 모두가 잘사는 영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암=나동호 기자

“추울수록 새콤달콤” 땅끝해남 딸기 본격 출하

스마트팜 시설·수경재배 통해 고품질 생산

땅끝해남의 비닐하우스가 새콤달콤한 딸기향으로 가득한 가운데 해남 딸기가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출하에 돌입했다. <사진> 11일 해남군에 따르면 16개 농가, 6.9ha 면적에서 딸기를 재배 중이며 국내 육성 품종인 ‘설향’을 축적 재배해 12월 상순부터 출하하고 있다. 해남딸기는 한반도 최남단 따뜻한 기후에서 생산돼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설베드, 차광, 양액 공급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팜 시설과 현대화된 수경재배를 통해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딸기는 고소득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재래식 토경 재배에 따른 노동력 증가로 고령화된 농가에서 외면받아 왔으나 현대식 양액재배 방법이 도입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최근에는 귀농·귀촌인구와 청년들

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진 작목이다. 해남군에서는 임대실습농장 프로그램 운영과 재배 기술 교육 등으로 신규 농업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딸기 우량묘 생산 기술시범사업으로 자체 모종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 내년부터 자체 생

산한 모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영농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농가의 고품질 딸기 재배를 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한 딸기 안정 생산 기술 보급으로 해남군 딸기 재배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진도여성합창단, 10년 만의 정기 연주회 성료

시온어린이합창단·오카리나연주단과 화합 무대

진도여성합창단이 10년 만에 개최한 제4회 정기연주회가 관객들의 성황리에 마무리되며 지역 예술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1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이 주최하고 진도여성합창단이 주관한 이번 연주회는 ‘그 겨울을 시작으로’라는 주제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진도여성합창단은 별, 눈, 못잊어 등 세 곡의 합창으로 연주회를 시작했으며, 최성욱 해금연주가 비이런리와

호랑수월가를 선보여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 진도여성합창단과 시온어린이합창단이 섬집아기를 함께 불러 감동을 자아냈고, 목포하늘소리남성중창단은 행복을 주는 사람과 바람의 노래를 중창으로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진도여성합창단, 시온어린이합창단, 서진도농협오카리나연주단이 함께 진도 합창을 선보이며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했다. /진도=박세권기자

이번 정기연주회는 어린이 합창단과 협연해 진도가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 특구이자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예술적 비전을 보여줬다. 진도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진도여성합창단이 지역의 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설립된 진도여성합창단은 매년 전남도 도민합창대회 등에 참가하며 진도군의 예술적 역량을 알리고 있으며, 음악에 열정이 있는 관내 여성들을 대상으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는 진도여성합창단 총무(010-2614-0564)으로 하면 된다. /진도=박세권기자

강진군, 올해 마지막 추경 6천335억 편성

2회비 1.12% ↑ · 신규 사업 최대 배제·불용 예정 사업 삭감

강진군이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6천335억원을 편성해 강진군 의회에 제출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천89억원, 특별회계 200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2% (70억원·특별회계 5천만 원)가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기획재정부의 국제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70억원 감액 영향을 반영해 신규 사업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불용 예정 사업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강진군이 중앙부처를 방문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11억원으로, 이 중 호우피해

복구비 10억원, 가족연명대책비 7천만 원이 포함됐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19억원 ▲호우 재해복구사업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80억원 ▲벼 경영안전대책비 33억원 ▲강진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7억원 ▲강진군 육아수당 2억5천만 원 등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불안정한 국내·외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급한 현안사업과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목기자

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찾아요”

내일까지 군민 온라인 투표 실시... 郡 누리집서 참여

영광군은 11일 “오는 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군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 대상 온라인 투표는 적극행정 문화조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

광군청 대표 누리집 내 열린군정-참여마당-설문조사 항목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군민투표’를 선택하고 게시된 적극행정 각 사례 중 3건을 선택해 투표하면 된다. 우수사례 선정은 내부 직원 투표와 군민 온라인 투표, 그리고 적극행정심

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의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사례 내용만 표기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이번 온라인 투표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군정 서비스와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공생복지재단, 하정웅 소장 작품 기증식

19일 목포 공생원에서 ‘불모지에 핀 자애로움’ 주제

공생복지재단은 11일 “오는 19일 오후 1시 목포 공생원에서 ‘불모지(不毛地)에 핀 자애로움’이란 주제로 동강 하정웅 소장 작품(사진) 기증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정웅 소장이 소장해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박병희(朴炳熙·1948-2019)의 1985년 작품으로 작품명은 자애(慈愛)이며, 소재는 브론즈다. 작품 설치의 공생원에서 채굴된 자연석의 상부를 작품의 받침대 부분의 사이즈에 맞게 가공해 자연석에 작품의 받침대가 딱 맞게 설치한다. 자연석은 작품 부착을 위한 가공 외에는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이용하고, 작품 정보(타이틀, 작가 명, 기증자명)

는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육석으로 캡션을 제작해 작품 앞에 따로 설치한다. 불모지의 땅에 공생원을 세우고 지켜온 윤치호 전도사와 윤학자 여사의 국가를 뛰어 넘은 박애정신과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 선구적으로 메세나 정신을 실현해 온 하정웅 활동의 상징물을 결합해 ‘불모지에 피어난 자애로움’이라고 하는 ‘꽃’을 상징하는 공간을 구성했다. 공생복지재단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 목포를 거점으로 운영하며 4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폈고, 일본에 제일교포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 ‘고향의 집’을 설립해 1980년대부터 약 500여명의 제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는 사



업을 진행 온 재단이다.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는 “하정웅 선생이 한국 문화예술의 발전과 청년작가들의 발굴·성장을 위해 보여준 자애로움을 상징하는 본 작품을 공생원에 기증·설치하는 것은 공생원과 윤학자 여사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라며 “나아가 아무리 힘든 시련이 있더라도 올바른 일을 지속한다면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장소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신안군 ‘K-발효식품’ 홍어 썰기 전문가 배출

홍어 썰기 학교 수료... 69명 자격증 취득

신안군은 “최근 흑산면 게이트볼장에서 제5기 홍어 썰기 학교 수료식을 갖고 자격증을 교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흑산 홍어 썰기 학교는 2020년부터 신안군 관광협의회 흑산지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81명이 수료했다. 홍어 썰기 자격증은 지난 10월 8일 실시한 제4회 흑산 홍어 썰기 자격시험에서 초급 자격증 18명, 중급 자격증 4명을 포함해 초급 자격증 66명, 중급 자격증 4명 등 총 69명이 취득했다. 흑산 홍어 썰기 학교를 개교한 이유는 흑산 홍어 판매자들의 고령화로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수요량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개교하게 됐다. 현재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고 판매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서진 홍어 썰기 학교장은 “수료생들의 노력과 열정에 깊이 감사하며, 홍어 썰기 기술이 지역주민의 중요한 소독원이 돼 가고 있다”며 “더 많은 수료생들을 배출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흑산 홍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차별화를 위해 흑산 홍어 축제 10회 개최, 흑산 홍어 포장재 제작 지원, 홍어 이력 관리 체계적 운영, 다양한 홍어 요리법 개발 등 흑산 홍어를 세계적인 K-발효식품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흑산 홍어잡이 어선은 22척이 등록돼 있고, 신안군의 홍어 어획 총량은 60%로 연간 58억 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신안=양홍기기자

